제 5 회 청 소 년 사 회 참 여 발 표 대 회

3

귀가 시 치안문제 및 가로등 법률 사회참여

모둠명 | 마중물(2)
모둠원 | 정유진 박효정 김아진 강수희
지도교사 | 김태삼(삼천포중앙고)
소속기관 | 삼천포중앙고등학교

3 귀가 시 치안문제 및 가로등 법률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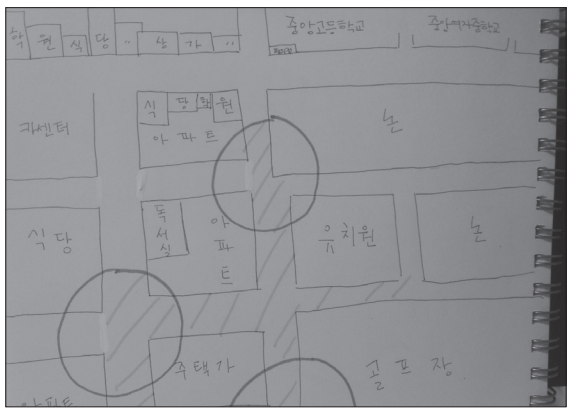
– 마중물(2)

1. 문제제기

1-1. 문제 상황

경상남도 사천시, 작은 항구도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삼천포에 대한 수식어는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보기 좋은 말들과는 다르게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밤 늦은 시각에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면 우리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하곤 했다. 특히 우리가 재학 중인 중앙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벌리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학교 앞에는 논밭과 검고 커다란 도로만 있는 곳일 뿐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어 등교할 시 항상 길잡이 할아버지들이 수고해주시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천포에 납치범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의 내용은 무쏘라는 차종을 타고 납치를 한다는 것이었다.

학교 주변을 지도로 간단히 나타내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무쏘를 보았다는 아이들의 증언이 있던 장소이며, 사선으로 칠해진 길은 무쏘가 자주 나타나고 이용하는 길이다. 어둡기로 유명한 향촌동 거리에서 나타난 납치차량이라 아이들은 훨씬 쉽게 동요했다.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후 걷는 이 길은 불빛 한 점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다. 밝은 편의점 주변이 아니면 굉장히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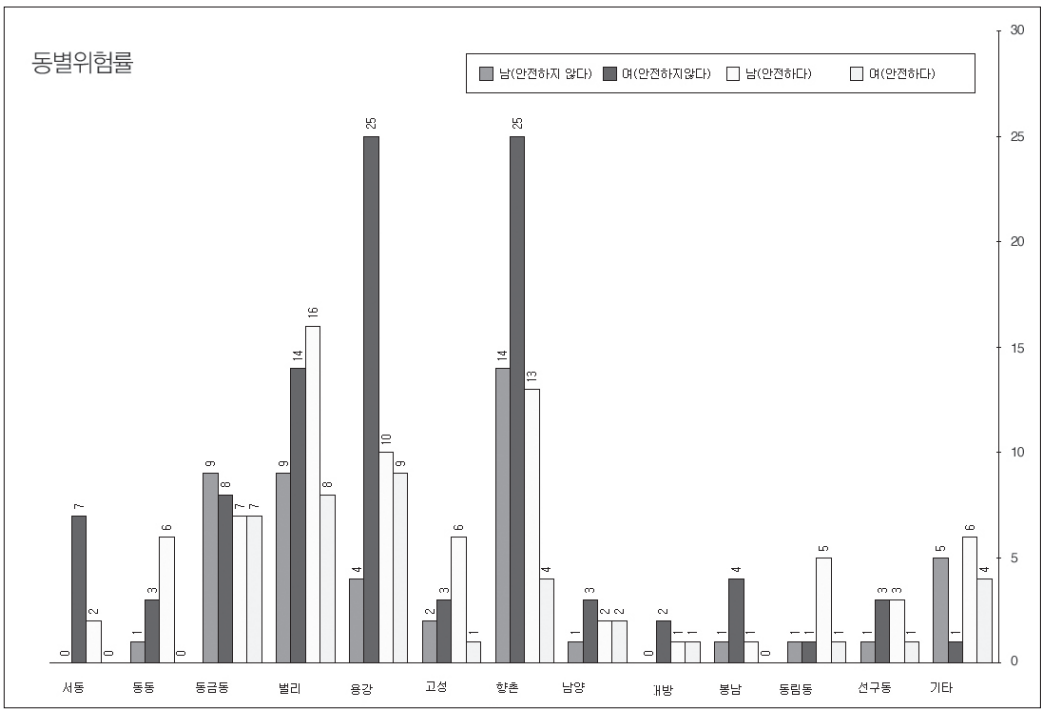


하지만 이곳 향촌동뿐만 아니라 길이 어두운 곳은 여러 곳이 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집으로 가는 길을 촬영해서 서로 어디가 어두운지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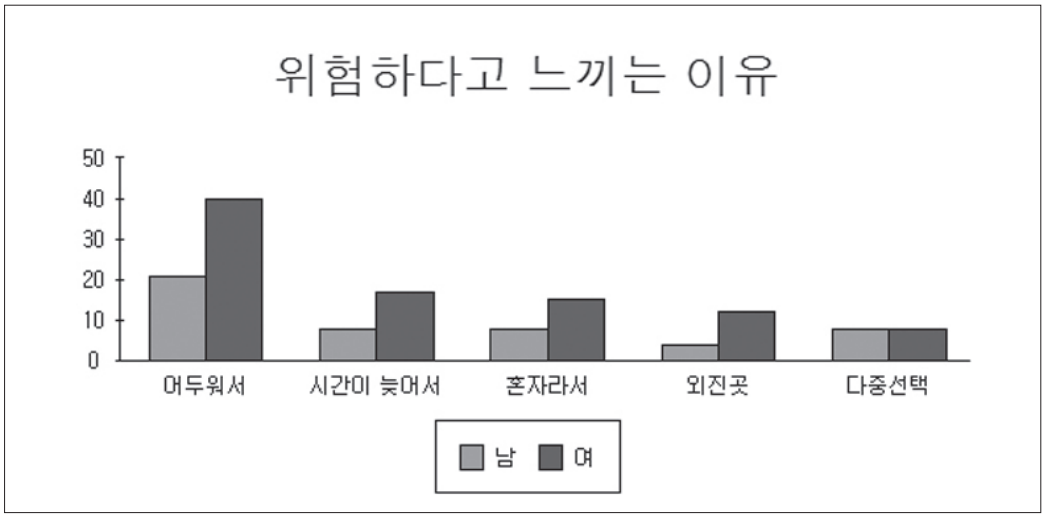
실제로 촬영한 향촌동 어느 골목이다. 차들이 10대 정도가 주차될 수 있는 길이의 골목에 설치된 가로등은 고작 2개뿐이다. 그마저도 주황색 불빛을 내는 터라 주변을 확실히 밝혀주지도 못하고 있다. 주변에는 공원 하나와 수많은 주택으로 구성된 동네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곳이라 위험성은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교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2학년 포함 총 270여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천시 동별 위험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총 13개의 동(기타 포함)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용강동과 향촌동이 눈에 띄게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불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위험하다고 느낀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어두워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뿐 아니라 국내와 국제의 광범위 적인 자료조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1-2. 가로등 부족으로 비롯된 문제 – 국내자료

1-2.1.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2012년 5월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20대 여성이 조선족 남성에게 피살당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현장일대는 밤에는 가로등 설치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잘 다니지도 못하는 거리라고 했다.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 혼자 귀가할 때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택시를 탑니다” 그 지역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모씨(61)는 “평소에도 가로등이 없어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낙후지역인데 살인 사건까지 났으니 주민 불안감이 오죽하겠느냐"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의 CCTV 판독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5월 1일 밤 어두운 골목길의 전신주 뒤에 숨어 있다가 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인 A씨를 덮쳐 쓰러뜨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불과 12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피해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해서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가로등이나 방범등 같은 안전조명(Safety Lighting, Security Lighting)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주택가의 도로가 20대 여성이 납치,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 및 살해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도로와 골목길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의 현장이 되기 쉽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어두운 상태로 방치돼 있는 주택가 도로와 골목길에 서둘러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를 대폭 늘림으로써 주택가 도로가 우범지대로 변하고, 그로 인해 선량한 주민이 어두운 밤길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마땅할 것이다.

출처: 조명 없는 밤길이 '수원 20대 여성 납치 피살사건' 불렀다 |작성자 LED짱
http://blog.naver.com/my1492?Redirect=Log&logNo=10136982789

1-2.2.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

흔히 김길태 사건이라고 하면 익히 들어보았을 이 사건은 2010년 2월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 발생지는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인적이 드물었던 공(空)·폐가(廢家)였다. 실제로 공·폐가 지역은 가출 청소년들의 은신처 등으로 전락하며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지목돼 경찰이 방범 정비 계획까지 밝힌 바 있지만, 현실 속의 공·폐가는 여전히 '위험지대'로 남아 있다. 김길태는 범행 이후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재개발 예정구역 일대 빈집 등에서 은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말은 곧 그 주변일대의 방범시설이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김길태는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500m 떨어진 지역에서 검거됐다. 사건 해결후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CCTV와 가로등 방범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그 사건이 발생한 부산 일대는 CCTV등의 방범시설의 보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밝혀져서 더욱 안타깝다.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0401071127216002
출처: http://news.newsway.co.kr/view.php?ud=2010030909572500780l1&md=20121224164547_AO

1-3. 가로등 부족으로 비롯된 문제 - II) 해외자료

1-3.1. 인도 도시 Himachal Pradesh - 국제 사례

위의 기사 내용 중 발췌 " Lack of street lights on GST Road resulted in the death of the child when an unidentified vehicle hit him and fled the scene in the early hours of Saturday, said sources " 정체불명의 차량이 어느 토요일 이른 시간에 4살 아이를 공격하였고, 이 결과는 GST길의 가로등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가로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4세 소년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고 게다가 이 사건은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기사에서 지적했듯 범죄의 원인은 가로등과 CCTV의 부족으로 알려졌다.

DECCAN Chronicle

Published on Deccan Chronicle (http://www.deccanchronicle.com)

Lack of streetlights on GST road leads to death of 4-yr-old

DC | 03rd Feb 2013

Chennai: A four-year-old boy from Himachal Pradesh, who had arrived in the city with his family to visit his uncle in the Army camp, died in a road accident in Pallavaram on Satur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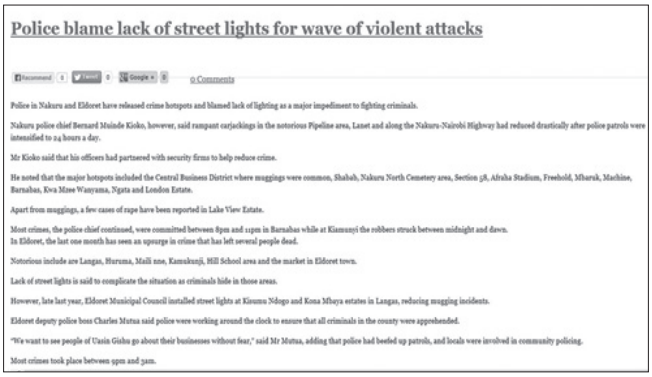
Lack of streetlights on GST Road resulted in the death of the child when an unidentified vehicle hit him and fled the scene in the early hours of Saturday, said sources.

Dinesh Kumar from Himachal Pradesh had to leave the city with his wife and two sons, Naimman (4) and Amaan (2) to visit his brother Ravi Kumar who works at the Army camp in Pallavaram. They stayed at the quarters inside the army camp and had made plans to offer prayers at Tirupati on Saturday morning.

Since they had booked tickets from the Central Railway station and the train was to depart at 7 am, the family, including Ravi Kumar's wife Monica were on their way to take the electric train from Pallavaram station at 5 am. When the family was crossing the GST road, due to poor visibility caused by the early morning mist, they did not see the vehicle approach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출처: http://www.deccanchronicle.com/

1-3.2. 케냐 Nakuru - 국제 사례



Police blame lack of street lights for wave of violent attacks

0 Comments

Police in Nakuru and Eldoret have released crime hotspots and blamed lack of lighting as a major impediment to fighting criminals.

Nakuru police chief Bernard Muinde Kioko, however, said rampant carjackings in the notorious Pipeline area, Lanet and along the Nakuru-Nairobi Highway had reduced drastically after police patrols were intensified to 24 hours a day.

Mr Kioko said that his officers had partnered with security firms to help reduce crime.

He noted that the major hotspots included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where muggings were common, Shabab, Nakuru North Cemetery area, Section 58, Afraha Stadium, Freehold, Mbaruk, Machine, Barnabas, Kwa Mzee Wanyama, Ngata and London Estate.

Apart from muggings, a few cases of rape have been reported in Lake View Estate.

Most crimes, the police chief continued, were committed between 8pm and 11pm in Barnabas while at Kinunyi the robbers struck between midnight and dawn.
In Eldoret, the last one month has seen an upsurge in crime that has left several people dead.

Notorious include are Langas, Huruma, Malli nne, Kamukunji, Hill School area and the market in Eldoret town.

Lack of street lights is said to complicate the situation as criminals hide in those areas.

However, late last year, Eldoret Municipal Council installed street lights at Kisumu Ndogo and Kona Mbaya estates in Langas, reducing mugging incidents.

Eldoret deputy police boss Charles Mutua said police were working around the clock to ensure that all criminals in the county were apprehended.

"We want to see people of Uasin Gishu go about their businesses without fear," said Mr Mutua, adding that police had beefed up patrols, and locals were involved in community policing.

Most crimes took place between 9pm and 3am.

출처: http://www.africanseer.com/

위의 기사 내용 중 발췌 "Police in Nakuru and Eldoret have released crime hotspots and blamed lack of lighting as a major impediment to fighting criminals." Nakuru와 Eldoret의 경찰들은 범죄 핫 스팟을 발표하고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가로등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케냐에서는 비단 도시 Nakuru 뿐만 아니라 케냐 내의 여러 도시에서도 가로등과 CCTV와 같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상강도, 살인, 강간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빈도수가 잦다. 이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 치안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를 통해 이미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가로등 부족이 범죄 발생률을 상승시킨다는 결론을 알 수 있는 실상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로등과 CCTV가 일으키는 문제, 그것을 비롯된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에도 있지만 위의 사례로 제시된 인도, 케냐, 가나의 국제적 위치이다. 제 3세계 국가에 속

하며 치안상태가 불안전한 나라들을 제시 자료로 놓은 이유는 여기서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전한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진국 궤도에 올라와있다는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 이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생활안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한 범죄들의 발생 빈도수가 높아 국민들의 불안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치안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보자.

1-4. 가로등 부족으로 비롯된 문제 – 민원 현황

1-4.1. 전라도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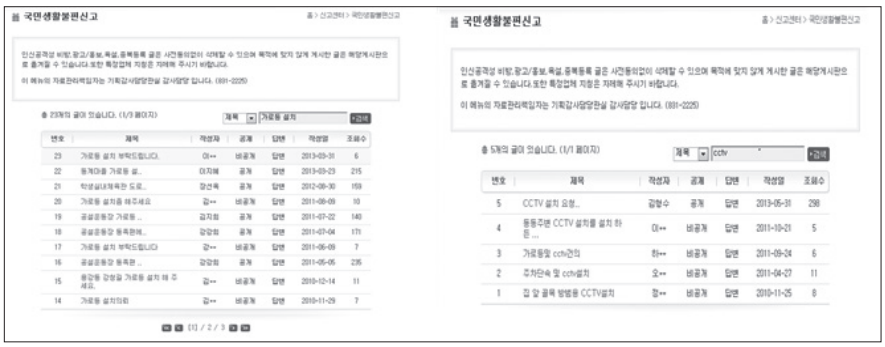
2012년 10월 30일 뉴스에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A어린이집 인근 원룸과 주택 밀집지역에 가로등이 턱없이 부족해 밤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주민 정모씨는 “해가 지면 동네주변이 어두워 밖에 나가기 무섭다”며 2~3개 정도의 등만 더 설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며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원룸에 살고 있는데 어린이집 뒤쪽은 저녁이면 캄캄해 무서워 지나갈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조치하는 등의 뒷북행정보다 미리 설치해 사전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현재 가로등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1년 전 발생한 일로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로등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관계자는 몇몇의 반대 이유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 광주 동구는 안전성을 확보하였을까. 아니면 여전히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 답은 2013년 8월 26일에 올라온 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사는 광주의 주택가에서 빈집 털이 등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예산 문제로 올해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밤에는 가로등 조명이 거의 없어 어둡고 2년 전에는 신가지구대가 수완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방범용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1-4.2. 대도시, 서울

‘대학가 자취촌, 여전히 ‘불안’ 가로등, CCTV 부족해’ 라는 제목으로 2012년 10월17일 기사가 올라왔다. 서울 모 대학 인근에서 자취를 하는 여대생 A씨(22)는 지난해 말 변태 강도를 만났다고 전했다. A양은 “어느날 아침, 택배라면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줬는데 강도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근 옥탑방에 거주하는 여대생 B씨(23)는 최근 괴한의 습격을 당했다. 최근 한밤중에 B씨의 집 방문이 열리더니 한 괴한이 방으로 들어왔다. B씨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괴한을 밀치고 옆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걸어 잠갔다. 괴한은 재빨리 도주했다. 대학신문사인 '외대학보'의 지난 11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이문동 한국외대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 334명 중 자취를 하면서 위험 불안을 느낀 학생은 272명(81.2%)으로 나타났다. 위험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자취촌 밤길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부족(가로등, CCTV)이 51%로 가장 컸다. 이러한 기사들을 살펴볼 때 가로등의 부족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3대 신문사 중 하나인 중앙일보에서는 '범죄 많은 지역 가로등 CCTV 적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여기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13만 8766건 중 10만913건이 서울 456개동 중 133개동에 집중 됐으며, 이는 방범시설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지역 민원 확인하기

먼저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꽤 상당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요청도 다소 있었다. 그래서 가로등(보안등)과 방범용 CCTV에 대한 법률을 조사해 보았다.

2. 대안 정책

우선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많은 시도군의 설치 관리 조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천시의 설치 관리 조례나 관리 규정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의문을 가지고 실제

로 우리 시에서 그러한 조례나 규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사천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를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가까운 하동군 가로등 보안등 관리 규정을 보았다. 가로등은 차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차량 및 군민 대다수의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등을 말한다는 용어의 정리가 있었다. 또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도로의 주변환경, 전원의 공급 상황,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0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설치절차 및 기준이 있었다. 설치 우선순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장 또는 마을이장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를 요청할 경우가 있었다.

하동군 가로등 보안 관리규정
출처: 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lawsNum=488501112320 08&scType=title&scValue=가로등&isClose=0&kin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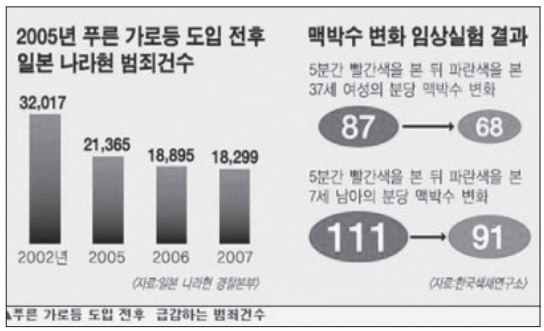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위험이 있으며 언제고 그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는 점점 잔혹하고 무서워지는 성범죄 살인 등에 무감각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은 더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줄 방법은 무엇일까?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우리는 아주 비싸고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지역에서의 가로등 개수를 늘린다거나 방범용 CCTV의 개수를 조금만이라도 늘리는 것이 불안을 잠식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사는 것이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할 때의 비용보다 더 값어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시 동구 기사 출처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52
광주 주택가 잇단 도난 사건 기사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6_0012311565&cID=10202&pID=10200
각 시 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출처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A%B0%80%EB%A1%9C%EB%93%B1
대학가 자취촌 여전히 '불안' 가로등 CCTV부족 기사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17000121&md=20121020003617_AT
범죄 많은 지역 가로등 CCTV적었다 기사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938639

3. 공공정책

3-1. 푸른색 가로등 설치



가로등이 꺼져있거나 불빛이 밝지 않아서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빈번하다.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가로등의 불빛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색채연구소의 한동수 소장은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케 해 맥박을 빨라지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반면에 파란색은 사람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끼도록 하는 정적에너지를 갖는다"고 말했다.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2000년 경관미화용으로 처음 설치된 푸른색 가로등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고,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나라현과 시마네현 등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에 푸른색 가로등을 2008년 12월에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항의를 많이 했다. 여고생으로서 귀가 길이 너무 어두워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다. 전국 모든 학생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 제 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모든 학생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푸른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어두운 골목길과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가로등을 푸른색 전구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취약장소를 '치안강화구역'으로 설정, 지구대, 형사,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순찰함으로써 민생치안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생 치안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해 저녁시간부터 새벽까지 학교나 학원가, 독서실 등 교육 시설 주변에 지키고 순찰하도록 한다.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가 서로 융합하게 해서 국민들이 범죄에 대해 보호를 잘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정책들을 잘 제시해 반영하면 지금보다 범죄율이 감소하고,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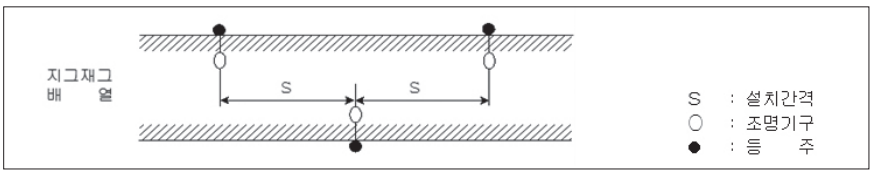
3-2. 가로등 설치 거리 규격에 대한 공공정책

가로등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의 밝기 정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가로등 간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가로등 설치 규정 제 5편 건설도시 가로등 관리규정 제 3조(설치범위)에서 가로등 설치는 '차도가 2차선 이상의 차도로서 차량 및 주민 통행이 많은 공공도로에 한하여 설치한다'이다.

실질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 주민 통행이 적은 도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바꿔야 한다.

가로등의 밝기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밑의 그림과 같이 지그재그 배열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그재그 형식은 마주보기 배열보다도 비추는 영역이 서로 어긋나게 되어 골고루 비춰질 것이다. 약 20m 이상의 높이를 갖는 장주(長柱)에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를 여러 개 설치하여, 넓은 범위를 조명하는 방식인 하이마스터 조명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실행계획

2013. 9. 12. 사회참여발표대회 조원들 중 두명과 함께 사천시청을 방문했다. 사천시청 이종순 총무과장은 적극적인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주셨다. 과장님은 우리에게 시청의 입장, 공무원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해주셨다. 우리는 사회참여발표대회를 참여하게 된 동기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간단한 설명시간을 가졌다. 먼저 그는 적극적인 활동이 보기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 총무과장으로서 예산을 비롯한 관공서가 행하는 일에 대한

작은 룰을 이야기해 주셨다. 실제로 가로등에 관한 법률은 정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셨다. 사거리, 직선 등 거리의 모양이 다양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물 또한 다양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뒤 가로등 설치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지 법률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고 답변해 주셨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고 검토한 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2013년 10월 4일 사천시청을 2차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담당자 최동철 씨와 함께 의논했다. 우리가 제시한 공공정책안을 검토하시면서 가로등 관련된 실질적인 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사천시 특성상 제한되어있는 환경(농업 및 어업)으로 인해 다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나, 현재 정부가 권장하는 환경적 방향과 공통분모를 이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셨다. 또 2014년 5월에 설치되는 안전행정과는 현재 세분화된 부서를 하나로 통합시켜 시민들의 민원이나 현황을 좀 더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우리의 의견이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가로등에 관한 공공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예상 효과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약속하셨다. 지역사회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 아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재, 우리의 작은 출발로 인해 국가 치안의 견고함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잠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밤길이 무서워 움츠러든 어깨로 짊어진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가라앉은 골목어귀를 볼 때면, 두려움으로 집에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빛하나를 바꾸는 정책이라도 펼쳐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해본다. 우리의 생각이 작은 희망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